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가능성

□ 의료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됨.

- 새해 들어 공공요금 인상 기조가 나타난 가운데 특히 의료수가가 1.6% 인상되면서 의료서비스 요금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 -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의원수가를 2% 인상하는 등 평균 의료수가를 1.6% 인상하고 건강보험료율을 직장 및 지역 각각 5.9% 인상하기로 결정함.
 - 1월 기준 한방진료비가 전월대비 4.6%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치과진료비(1.7%), 외래진료비(1.6%), 입원치료비(0.8%) 등의 순으로 인상됨.
-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년 내지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갱신행 상품이지만 보험료가 비급여 및 보험금, 손해율, 의료수가 등을 토대로 매년 산출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됨.
 - 의료수가가 인상되면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영향을 받지만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영향을 받게 됨.

□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한 의료수가의 인상으로 인해 즉각적인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됨.

- 보험회사의 경우 의료수가 인상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이기는 하지만 이를 당장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시키진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임.
 - 실손의료보험 계약통계 등과 같은 기타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여 3년간 의료비 통계를 종합적 판단해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당장의 보험료 인상검토 또는 계획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.
- 단, 실손의료보험 참조보험료율 산정이 매년 4월 1일 이루어지며 이번 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내용이 과거 반영추이를 바탕으로 적용될 예정이므로 시차를 두고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존재함.

(오는 4월 실손의료보험 의료수가 인상 반영, 보험일보, 2/8)